

# ‘손흥민·황희찬’ 벤투호 복귀...수원FC 박민규 깜짝 발탁

24일 이란과 최종예선 9차전·29일 UAE와 10차전 경기  
손흥민·황희찬, 4개월여 만에 대표팀 복귀...정우영도 발탁  
박민규·이재익·김동준 등 깜짝 발탁...황인범 부상 제외

이란과의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조 1위' 싸움을 앞두고 벤투호가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울버햄튼), 황의조(보르도) 등 유망파들을 대거 소집했다. 파울루 벤투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은 3월 A매치 기간에 열리는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9~10차전에 나설 태극전사 25명의 명단을 14일 발표했다. 대표팀은 24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란과 최종예선 9차전 홈 경기를 치른 뒤 29일 오후 10시45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알막툼 스타디움에서 UAE와 최종예선 10차전 원정 경기를 갖는다. 2경기를 끝으로 카타르월드컵 최종예선 일정은 모두 마무리된다. 9차전 상대인 이란과의 상대전적은 32전 9승10무13패로 열세다. 지난해 10월12일 이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치른 최종예선 원정 경기에서는 1-1로 비겼다. 이란전 마지막 승리는 2011년 1월22일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8강전(1-0 승)이다. 마지막 10차전 상대인 UAE와의 상대전적은 20전 13승5무2패로 크게 앞선다. 지난해 11월 11일 최종예선에서 1-0으로 승리했다. 최근 6

연승 중이기도 하다. 벤투호는 지난달 1일 시리아와의 최종예선 A조 8차전에서 2-0으로 승리해 최소 조 2위 자리를 확보해 카타르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1986년 멕시코 대회부터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다. 처음 출전했던 1954년 스위스 대회를 포함하면 통산 11번째 월드컵 본선행이다. 월드컵 본선 진출이 확정됐지만, 이란과의 홈 경기는 조 1위를 놓고 붙는 백마치다. 한국은 최종예선 A조에서 승점 20점으로 2위에, 이란은 승점 22점으로 1위에 올라 있다. 한국이 이란을 이기면 조 1위에 등극한다. 또 월드컵 조추첨에서 포트3을 차지하기 위해선 남은 최종예선 2경기에서 최대한 승리를 챙겨야 한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세계 랭킹에 따라 월드컵에 참가하는 32개 팀을 4개 포트에 나눠 조를 짠다. 랭킹이 높을수록 상위 포트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포트3을 노리고 있다. 2연전 필승을 위해 벤투호는 최종예를 불러 모았다. 부상에서 회복 중인 '황태자' 황인범(루빈카잔)이 빠진 가운데 부상으로 지난 1-2월 최종예선에서 빠졌던 손흥민과 황희찬이

- ◇3월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명단(25명)
- ▲GK = 김승규(가시와레이슬) 조현우(울산) 송범근(전북) 김동준(제주)
  - ▲DF = 김영권(울산) 김민재(페네르바체) 권경원(감바오사카) 박지수(김천) 이재익(서울이랜드) 김태환(울산) 윤종규(서울) 김진수(전북) 박민규(수원FC)
  - ▲MF = 정우영(알사드) 백승호(전북) 김진규(부산) 이재성(마인츠) 권창훈(김천) 정우영(프라이부르크)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울버햄튼) 송민규(전북) 나상호(서울)
  - ▲FW = 황의조(보르도) 조규성(김천)



지난해 11월 17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타니 빈 자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한국 대 이라크 경기에서 손흥민이 골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김동준(제주)도 오랜만에 태극마크를 달았다. 이재익은 2019년 10월 카타르월드컵 2차예선 이후 처음 소집됐다. 김동준은 2018년 1월 터키 전지훈련 이후 첫 소집이다. 둘 다 A매치 데뷔전을 치르지 못했다. 포지션별로 공격수 2명, 미드필더 10명, 수비수 9명, 골키퍼 4명이다. 카타르월드컵에 배정된 아시아의 본선 진출권은 4.5장이다. A, B조 상위 1~2위 팀이 본선이 직행하고,

각 조 3위 팀끼리 플레이오프를 치른 뒤 대륙별 플레이오프를 통해 본선행 주인공을 가린다. A조에선 이란과 한국이 본선행을 확정할 가운데 B조는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호주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벤투호는 오는 21일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로 소집돼 3월 최종예선 2연전을 준비한다. 뉴스



파울루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 ‘조 1위’ 노리는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 “신체적·전술적으로 이란 강하지만 잡을 수 있다”

이란과의 2022 카타르월드컵 최종예선 맞대결을 앞둔 파울루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이 조 1위를 차지하기 위해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벤투 감독은 3월 A매치 기간에 열리는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9~10차전에 나설 태극전사 25명의 명단을 14일 발표했다. 대표팀은 24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란과 9차전 홈 경기를 치른 뒤 아랍에미리트(UAE)로 건너가 29일 오후 10시 45분 두바이 알막툼 스타디움에서 UAE와 마지막 10차전을 갖는다. 벤투 감독은 “다가올 2경기의 목표는 승점 6점이다. 이것은 조 1위 가능성을 말한다. 본선 진출을 확정했지만, 조 1위를 차지할 기회다.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신체적으로나, 전술적으로 강한 팀이다. 기술 좋고 경험 많은 선수들도 보유하고 있다. 아즈만이 있으면 투톱도 되고, 없으면 타레미가 원톱을 본다”며 “분명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란의 1위를 막고, 승리해서 우리가 1위로 올라가겠다. 어렵겠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경기를 치르겠다”고 강조했다.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지만, 이란과의 대결은 조 1위 자리를 놓고 펼쳐지는 자존심 싸움으로 관심을 끈다. 승점 20점으로 A조 2위인 한국이 이란(승점 22)을 이기면 조 1위로 올라선다. 더불어 최종예선 마지막 2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내면 카타르월드컵 본선 조추첨을 앞두고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 월드컵 조추첨은 FIFA 랭킹에 따라 조를 나눠 편성하는데, 상위 포트에 속할수록 약팀과 한 조에 묶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포트3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벤투 감독은 “포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 다가올 2경기를 어떻게 상대할지 연구하고 있다. 승점 6점을 따서 조 1위를 해야 한다. 그 이후의 것들은 지켜봐야 한다. 포트3, 4 중 어디로 갈지 불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명단 발표전 에버턴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경기에서 부상으로 전반 15분 만에 교체된 황희찬(울버햄튼)도 이름을 올렸다. 벤투 감독은 “항상 해오던 대로 선수들의 컨디션을 확인하고 있다. 소집 전에 모든 정보를 모았다”면서 월드컵 최종예선을 뛰는 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깜짝 발탁된 수비수 박민규(수원FC)와 이재익(서울이랜드)에 대해선 “꾸준히 관찰해 온 선수들이다. 이재익은 이전에 우리와 함께했고, 박민규는 지난 시즌과 올 시즌 관찰했다. 기술적으로 좋은 선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비진에 김영권(울산)과 권경원(감바오사카)이 있으나, 권경원의 컨디션을 점검해봐야 한다. 그래서 이재익을 선발했다. 박민규는 수비적으로 좋은 옵션이 될 것이다. 대표팀에서 어떻게 필지 지켜볼 기회”라고 덧붙였다. 뉴스

## ‘이승엽 이어, KBO리그 두 번째’ 이대호, 은퇴투어 치른다

KBO “10개 구단과 의논해 이대호 위한 은퇴투어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

이대호(40·롯데 자이언츠)가 KBO리그 두 번째 은퇴투어 주인공이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4일 “10개 구단과의 의논해 올 시즌을 마친 후 현역 은퇴를 예고한 이대호에 대해 그동안 리그와 국가대표팀에서 보여준 공로를 존중, 은퇴투어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KBO리그에서 10개 구단이 함께 은퇴 투어를 여는 건 2017년 ‘국민타자’ 이승엽(당시 삼성 라이온즈) 이후 두 번째다. 이대호의 은퇴투어 이벤트는 각 구단의 롯데 홈경기 일정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세부 계획은 추후 발표된다.

2001년 롯데 2차 1라운드 4순위로 프로에 뛰어난 이대호는 KBO리그에서 통산 1829경기 기록을 세워 타율 0.307, 351홈런 2020안타 1324타점 919득점의 성적을 냈다. 2010시즌에는 9경기 연속 홈런이라는 세계 신기록도 세웠다.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2008년 베이징올림픽, 2015년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등 주요 국제대회에서는 태극마크를 달고 중심타선에서 활약했다. 한편, KBO와 10개 구단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영향으로 치르지 못한 올스타전을 7월16일 잠실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KBO는 “올해 올스타전은 KBO리그 출범 40



주년을 기념, 지난 40년을 추억하고 앞으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새롭게 도약하는 의미를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잠실에서 올스타전이 열리는 건 2011년 이후 10년 만이다. 뉴스

## ‘명예회복 다짐’ 류현진, 미국행...토론토 스프링캠프 합류

토론토, 19일부터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시작



토론토 블루제이스 류현진이 메이저리그 시즌 준비를 위해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딸과 아내 배지현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류현진은 14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떠났다. 류현진은 14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떠났다.

지난해 10월 시즌을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온 류현진은 휴식을 취한 개인 훈련을 시작했다. 류현진은 한국에서 컨디션을 조율한 후 미국으로 건너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메이저리그의 노사분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직장폐쇄가 계속 됐다. 미국으로 가지 못한 류현진은 그동안 친정팀 한화 이글스의 배려 속에서 옛 동료들과 함께 훈련했다. 거제 캠프를 시작으로 대전 캠프에서 훈련을 이어나갔다. 지난 11일 극적으로 메이저리그 노사의 협상 타결 소식을 들은 류현진은 곧바로 미국행 준비를 시작했다. 류현진은 플로리다주 클리어워터에서 열리는 토론토의 스프링캠프에 합류한다. 토론토는 오는 19일부터 시범경기에 나선다. 메이저리그 공식 개막은 오는 4월8일이다. 류현진은 명예회복을 버리고 있다. 류현진은 지난해 후반기에 난조를 보였다. 중반까지 팀의 에이스 역할을 맡았지만, 후반기 구위가 흔들리면서 14승 10패 평균자책점 4.37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시즌 평균자책점은 메이저리그 진출 후 가장 좋지 않았다. 뉴스

## V-리그 20일 기업은행 vs 인삼공사전 시작으로 재개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V-리그 여자부 재개를 앞두고 일정을 발표했다. 한국배구연맹은 14일 “재편성된 여자부 6라운드 잔여 경기가 오는 20일 IBK기업은행과 KGC인삼공사 경기를 시작으로 재개한다”고

발했다. 이번 시즌 V-리그는 코로나로 인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다. 남녀부 모두 선수단 내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리그 운영에 파행을 겪고 있다.

현대건설과 GS칼텍스, KGC인삼공사, 페퍼저축은행 등 여러 구단에서 확진자가 나와 리그가 멈춘 상태다. 여자부의 누적 리그 중단기간은 총 26일로 늘었다. 당초 매뉴얼대로면 포스트시즌이 취소되는 게 맞지만, 연맹은 구단과 회의를 통해 6라운드를 모두 치른 후 포스트시즌을 축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